

특별한 매력 품은 서울의 숨은 공원

여러분 주변에는 공원이 있나요? 싱그러운 자연 속을 거닐고 한가롭게 책을 읽거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서울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130여 개나 있다고 합니다. 남산, 서울숲, 길동생태공원, 올림픽공원처럼 익히 알려진 곳도 있지만 잘 찾아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특별한 이야기도 품은 숨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울 속의 특별한 공원을 찾아 귀뜸해 드립니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휴식·예술 공간으로 재생된 정수장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의 서쪽 끝인 신월 IC에서 시작된다. 신월IC 주변은 아파트와 빌딩이 뽐뽐이 채우고 있다. 남부순환로에서 신월IC 방향으로 가다 주유소 오른편 주택가로 접어들면 오른쪽으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건물이 나타나고 그 뒤로 초록 숲이 있는 곳이 바로 서서울호수공원이다. 서서울호수공원은 물을 정화하는 시설인 옛 신월정수장을 ‘물’과 ‘재생’을 주제로 한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신월정수장은 1959년 인천 김포정수장으로 처음 문을 연 뒤 1979년 서울시가 인수해 하루 평균 12만톤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다 2003년 가동이 중단됐다.

수도관 재활용한 자전거 보관대와 조형물

2009년 개장한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자전거 보관대가 눈길을 끈다. 갈색 원통이 가로로 길게 놓여 있고 세로로 판 홈에 자전거 앞바퀴가 놓이게 거치돼 있다. 이 원통은 옛 정수장에서 사용하던 직경 1m의 수도관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놓인 벤치도 수도관을 이용해 제작됐다.

자전거 보관대 뒤편의 맑은 연못에는 연보라색 붓꽃이 띄엄띄엄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연못 뒤편엔 산책로 옆으로 ‘재생정원’이 이어진다. 풀밭에는 다시 직경 1m의 꽤 많은 수도관이 조형물인 듯 놓여 있다.



2



1

산책로 건너 공간은 ‘열린풀밭’. 옛 관사 자리를 이용한 공간으로 아래쪽에는 1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100인의 식탁’이 마련돼 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잔디밭에는 초록빛 싱그러운 느티나무, 이팝나무가 서 있고, 풀밭 중앙에는 상수관 조형물이 놓여 있다. 풀밭 둘레 산책로에서는 시민들이 발을 경쾌하게 내디딘다. 산책로 왼쪽으로 연꽃이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호수가 펼쳐진다. 호수 중앙에는 인근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소리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분수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비행기가 수차례 상공을 지나도 분수대는 물을 뿜지 않았다.



4



5



3

1 옛 신월정수장 수도관을 재활용한 자전거 보관대 2 수도관을 이용한 열린풀밭의 조형물 3 수도관들이 놓여 있는 재생정원 4 문화테크광장과 호수 5 서서울호수공원과 고리울가로공원을 잇는 산책길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면 능골산 산책길이다. 이 길은 부천 고리울가로공원으로 이어진다. 두 공원을 잇는 길은 짙은 그늘 숲길이어서 여름에 걷기 좋다. 두 공원은 서울과 부천의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인 셈이다. 길을 되돌아 나오자 숲 한쪽에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있다. 그늘막 앞으로는 다랑논처럼 층층으로 구역이 나뉜 열린마당이 펼쳐진다.

예술·휴식 공간이 된 침전조
산책로는 방문자센터 옥상정원으로 연결된다. 옥상정원은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인 여과지동(棟)의 콘크리트 기둥과 빠져나온 철근을 그대로 남긴 채 조성했다. 사계절 초록빛 싱그러움을 느끼게 하는 측백나무, 주목 등 사철나무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화단 한쪽에선 유치원 아이들이 흙 놀이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옥상에선 깔끔하게 조성한 문화데크광장과 호수가 이룬 풍경이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1 몬드리안정원의 전망 쉼터
2, 3, 4 옛 침전조는 독특한 모습의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방문자센터 옆은 몬드리안정원. 옥상정원과 몬드리안정원의 상층부가 곧바로 연결돼 있다. 상층부 한쪽 면은 전망 쉼터다. 앉아서 편하게 호수를 감상하며 쉴 수 있게 옆으로 나란한 철재 의자가 설치돼 있고, 호수를 향해 돌출한 전망대도 있다. 몬드리안정원은 침전조(유해 또는 오염 물질을 분리하거나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통)의 일부를 남겨 조성한 공간이다. 정원 상층부를 휘도는 탐방로인 '하늘로'에서는 아래쪽이 내려다보인다. 그곳에는 허름한 옛 구조물과 초록빛 화단과 식물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수직과 수평의 선이 조형미를 선사한다. 몬드리안의 구성기법을 도입한 구조라고 한다.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직선들이 이룬 아름다움이 프레임에 잡힌다. 연못과 하늘길, 초록 식물과 탐방로, 꽃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미술관을 돌아보는 듯하다.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 산자락 숲길,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 약수터도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접근이 편하진 않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5호선 까치산역에서 20분 이상 걸린다. 까치산역에서 버스로는 10분 정도 소요된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7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5분당 50원, 1일 9천원이다. 11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다.



2 1 허브천문공원의 프렌치 라벤더. '토끼의 귀'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2 도시농업공원 나도농부센터에 있는 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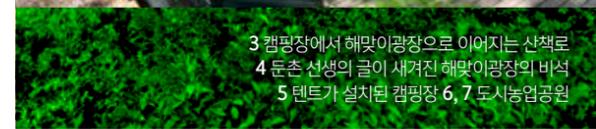
3



5



4



3 캠핑장에서 해맞이광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4 둔촌 선생의 글이 새겨진 해맞이광장의 비석
5 텐트가 설치된 캠핑장 6, 7 도시농업공원

허브천문공원에서, 지하철로 간다면 일자산 제1체육관에서 출발해 돌아보는 것이 좋다. 허브천문공원 인근 주차장이 일자산 제1체육관 인근 주차장보다 더 여유롭기 때문이다.

형형색색 향기로운 허브천문공원 주차장에서 언덕길을 오르면 허브천문공원에 닿는다. 입구에는 북두칠성-큰곰자리, 천진(天津, 은하수 나루터)-백조자리 등 동서양 별자리를 비교한 흥미로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허브 식물들이 색색의 화려함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보라색의 프렌치 라벤더와 헬리오트롭, 연보라색 차이브, 자줏빛 퍼플멜레인, 노란색 화사한 캘리포니아포피 등 허브 종류가 무척 다채롭다.

전체적으로 공원의 모양은 동그랗다. 그 안에 '색의 정원', '감축의 정원', '향기의 정원', '차의 정원'이 있다.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 은은하고 향긋한 허브향이 후각을

자극한다. 곳곳에 쉼터와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나무로 만든 커다란 계단식 전망대 아래로는 초록빛 숲의 바다가 넘실댄다. 때마침 날은 청명하고 바람마저 시원하다. 전망대 입구 천장에 비스듬하게 뚫린 사각 액자를 통해서만 하늘이 내다보인다.

다채로운 허브 식물이 식재된 온실과 조그만 천문대도 있다. 방문객들은 천천히 걸으며 꽃을 감상하거나 전망대나 쉼터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7



6

숲길 산책로에 볼거리 많아

허브천문공원 아래에는 가족캠핑장이 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텐트가 설치된 데크 60면, 개인 텐트를 칠 수 있는 12면, 오토캠핑장 8면으로 구성돼 있는데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취사도구, 침구류, 세면도구는 지참해야 한다. 바비큐 시설은 없지만 근처 매점에서 그릴과 파라솔을 빌릴 수 있다.

캠핑장을 지나면 일자산숲길이 시작된다. 흔들다리건너기, 밧줄오르기 등 시설을 갖춘 유아숲체험장을 지나고 나면 완만한 경사의 숲길이 이어진다. 일자산능선을 따라가는 길이다.

정상에는 서울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해맞이광장이 있다. 광장이라고 하기엔 크기가 작고, 나뭇가지가 동쪽을 가리

고 있어 해돋이 감상 장소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광장에는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둔촌 선생의 글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둔촌은 고려말 대학자인 이집(1327~1387)의 호(號)로, 둔촌동이 유래했다. 둔촌은 신돈의 박해를 피해 일자산에서 은거했다고 전하는데 해맞이광장에서 약 400m 떨어진 숲길 한쪽에 은신처인 둔굴이 있다.

둔굴과 해맞이광장 사이에서 호헌병원육교 방향으로 내려간다. 오른쪽 숲길을 따라가면 일자산 제1체육관을 지나 숲길이 이어지고, 도시농업공원이 나타난다. 계단밭에는 감자, 보리 등이 있고, 관찰텃밭에는 야생초, 식용식물, 약용식물, 토종허브가 있다. 도시농업을 배우고 농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나도농부센터, 애기부들·노랑꽃창포·부처꽃·갯버들을 볼 수 있는 연못, 토끼가 사는 동물농장도 있다. 소풍 나온 초등생과 유치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관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일자산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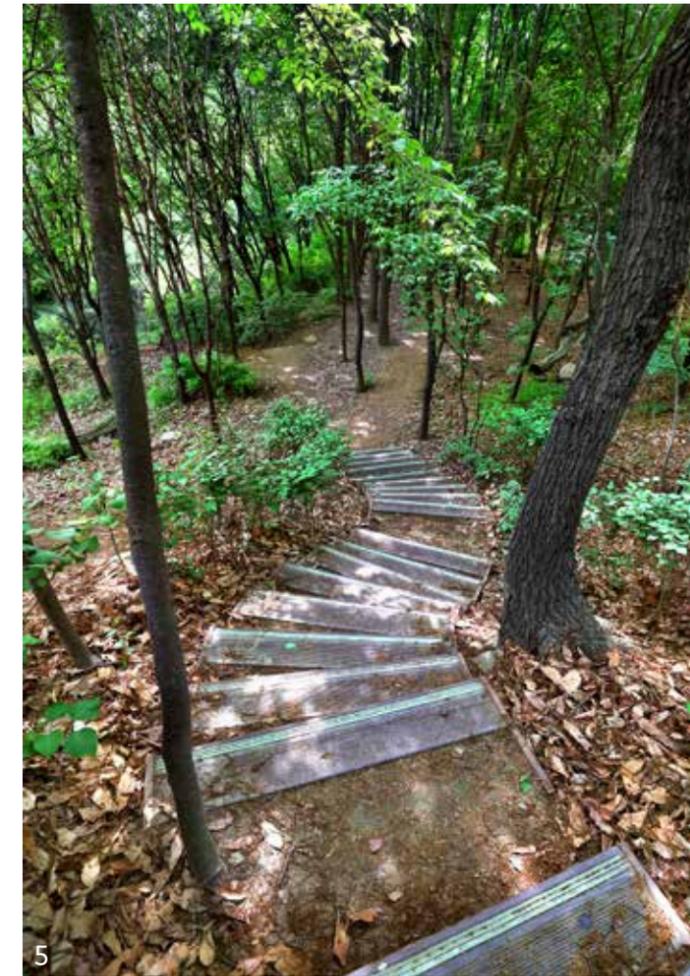
허브향에 취하고 농사도 체험하고

서울의 동쪽 끝,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 사이에는 일자산(一字山, 134m)이란 이름의 산이 있다. 지명처럼 산줄기가 남북으로 5km 정도 한일(一)자로 뻗어 있다. 길동자연생태공원, 명일근린공원, 방축근린공원, 샘터근린공원, 고덕산 등 강동구에 있는 야산의 작은 오솔길을 연결해 조성한 '강동그린웨이'(Greenway)의 출발점이기도하다. 일자산 왼쪽은 서울 둔촌동, 오른쪽은 하남 초이동과 감북동이다. 일자산자연공원은 자동차로 방문하면 공원 북쪽 끝자락에 있는

겸재의 화폭에 담긴 풍경 펼쳐지는 곳



1 바람개비 휘도는 공산근린공원 입구 2 공산 건너편 안현의 봉황불을 바라본 정경을 그린 겸재 정선의 '안현석봉'과 이병연의 시



3, 5 공원 산책로 풍경 4 한강과 건너편 풍광이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소악루 6 겸재정선미술관 7 공산땅굴

새 명소 서울식물원 인근 한강 변에는 공산(宮山, 74.6m)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예전 파산(巴山), 성산(城山), 관산(關山), 진산(鎭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조선 시대에 공자의 위패를 모신 향교가 들어서면서 숭배의 뜻을 담아 공산이라 했다.

그림이 되고, 시가 된 풍광

겸재정선미술관 뒤편에 있는 공산근린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오르막길 양쪽으로 노랑과 빨강 바람개비가 봄바람에 휘휘 돌며 춤춘다.

10분 정도 비탈을 천천히 오르다 보면 누각(樓閣) 하나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다. '작은 악양루(岳陽樓)'란 뜻을 가진 소악루(小岳樓)다. 원래 공산에는 중국 동팅호(洞庭湖·동정호)에 있는 누각에서 이름을 따온 악양루가 있었는데 화재 후 버려졌다고 한다. 영조 때 악양루가 있던 자리에 누각이 재건됐고, 소악루라 불렸다. 지금 누각은 1994년 신축된 것이다.

당시 이 누각에 오르면 안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이 보이고, 한강 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진경이 펼쳐졌다고 한다.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1676~1759)은 양천현령

으로 있던 5년간(1740~1745) 이곳의 풍광을 화폭에 담았고, 그의 그림을 본 시인 이병연(1671~1751)은 멋진 시를 지었다. 누각에 올라서니 드넓은 한강 너머로 녹음이 짙은 월드킵공원과 난지한강공원이 건너다보인다.

'겸재 정선이 바라본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 안내판에는 겸재가 강 건너 안현(현재 안산)의 봉황불을 바라본 풍경을 그린 '안현석봉'(鞍峴夕烽), 남산 위로 달이 뜨기를 소망하며 소악루 일대를 그린 '소악후월'(小岳候月) 그림과 이병연의 시가 함께 담겨 있다.



2

미술관과 향교, 그리고 땅굴

소악루에서 조금 오르면 관산성황사(關山城隍祠)란 조그만 건물이 나온다. 예부터 마을을 수호하던 신(神)인 도당할머니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도당할머니는 번영과 행복을 이루게 돕고 악귀를 몰아내고 재앙과 돌림병을 막아줬다고 한다.

공산 정상은 평평한 풀밭이다. 이곳에선 소악루에서 봤던 풍경이 더 시원하게 펼쳐진다. 정상은 통일신라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천고성지'(사적 제372호)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 전 이곳에 머물며 작전을 짰다고 전한다. 한강 쪽을 바라보니 북서쪽으로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이 바라다보인다.

공산공원 나들이는 이것으로 끝이지만 주변에는 아직 둘러볼 곳이 남아 있다. 공원 입구에는 겸재의 작품과 생애를 주제로 하는 겸재정선미술관이 있다. 북한 강원도의 기이한 돌기둥을 그린 '총석정'을 비롯해 '금강내산도', '성류굴', '한벽루' 등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공원 입구 왼쪽에는 '공산땅굴' 전시장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 중 일제가 무기와 탄약을 저장하고 공습을 피하기 위해 굴착한 공간이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공산,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김포비행장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맨 안쪽에는 땅굴이 있다. 땅굴은 길이 68m, 높이 2.7m, 폭 2.2m 규모다.

서울에 있는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도 있다.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고, 외삼문 왼쪽에는 배출한 인재를 기리는 비석들이 서 있다. ❶



6

7